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6년도 표어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고난의 종 II

(시편 22:22-31)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난해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27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며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혀 상상도 못하고 이상한 말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책망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책망은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에 관하여 쓴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성경공부를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명백한 예언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른 것은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이방인 모두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회중에게 효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내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다" (롬 2:16)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8에서도 예루살렘이 먼저 복음화 되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복음이 확장됨을 말합니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25절). '큰 회중'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는데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특권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만이 갈 수 있습니다. 만일 이방인 중에 유대교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후에야 회당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회중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27절).

"땅의 모든 끝"은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을 말하며 복음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로 주를 찬양 것이며" (30절).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게도 효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효험은 유대인, 이방인, 과거, 현재, 미래의 성도들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1.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셨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형제에게 선포하고" (22절).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로서 우리의 신분은 엄청나게 상승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히 2:11).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만물은 그에게 복종합니다. 그런 분이 죄인 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사람에게 거룩하게 만드는 분이 거룩하게 되어진 피조물들과 동등한 모습으로 이 땅위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2. 복음의 확장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2절).

'회중'은 예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보고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 한 편 강도에게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관심은 마침내 하나님께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이 아닌 타인과 하나님께로 집약됩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어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31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속죄 사역이었고 마침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시편 22편은 복음의 확장과 승리한 교회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른 것은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이방인 모두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23절의 '야곱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는 분명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나 23절 초반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이방인도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회중에게 효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내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요 19:30) 라고 하신 말씀은 본문 31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31절)는 말씀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의가 선포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죄로 멸망 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속죄의 죽으심을 죽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하시는 대속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추궁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엡 2:10). 우리는 자신의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22편은 고난의 종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구원 받은 이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는 마음을 주었을 뿐 아니라 찬송하는 복을 가져다주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 생명이 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SB(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월 26일 교사헌신예배를 앞두고 전 교사들 1식 금식하며 기도로

금식헌금은 지하철 노숙자를 위해 사용키로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세재 장로)는 오는 26일 교사헌신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해 전 교사들이 금주 중 1식 이상 금식하고 깊은 기도의 체합을 통해 회개와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지난주에 있었던 교육위원회 월례회는 상기와 같은 내용의 헌신예배를 위한 교사들의 준비사항을 결의하고 금식헌금을 교회학교별로 모금하여 그 모금액을 서울역 지하도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서울역 지하도에는 현재 매일 저녁 1200여명의 노숙자에게 약 1800인분의 식사를 '예수사랑선교회'(대표:김범곤 목사)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당회의 결의를 득하여 교회학교 부장, 부감단이 학생대표들과 함께 현지를 방문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찬양으로

전도활동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부서의 부장과 부감을 비롯한 교사들은 24일 금요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헌신예배를 위한 금식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교육위원회는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선교사 후원, 전도대 활동, COP(기도합주단) 설립 및 주일학교 참가학생 배가(목표 4,000명) 등을 목표로 국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교사헌신예배 시에는 2층 예배실 앞쪽에 부서별로 좌석을 지정하여 교사 전원 참석을 독려키로 했으며 오후 4시부터 전체 찬양 연습을 실시 한다.

교사헌신예배를 통하여 교사들의 헌신과 결단으로 교회학교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한다.

호산나 학교 개교

3월2일 오후 2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여온 호산나 학교가 오는 3월2일 오후2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개교감사예배를 드리고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우리교회는 천국시민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교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난해 호산나 복지법인을 설립하고 호산나 장애인 학교를 개교키 위해 지금까지 준비 작업을 마치고 마침내 3월2일 개교하게 되는 것이다.

호산나 학교 1기 입학생은 대안학교, 방과후 학교, 전문대학 등 총 3과정에 62명이며 호산나 복지재단 이사장이신 이종윤 목사는 이날 감사예배의 설교를

맡는다. 이어 개교 및 입학 축하행사로 공성진 국회의원 의 축사, 이만영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의 격려사, 서울정신지체청소년합창단 단원인 조현진 씨의 축하 순서가 있다.

한편 호산나 학교는 전문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종이접기, 생활영어회화, 비즈공예, 체육 등 여러 부문에서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신 성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

우리에게 현당을 허락하시고 교회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전도위원회 1일 수련회 가져

24일(금) 오후 6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우리교회 전도위원회위원장 하영수 장로는 전도위원회 산하 남녀 전도회 임원, 70인전도대 팀장, 부팀장이 모두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며 올해 전도위원회의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1일 수련회를 갖는다.

이 수련회는 24일(금) 오후 6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리며 전도위원회 소속 남녀 전도회 임원과 70인전도대 팀장과 부팀장들은 반드시 전도위원회 1일 수련회에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여야 한다.

교육1국 겨울성경학교

2월20일(월)-21일(화) 이틀간 교회에서

교육1국 겨울성경학교가 내일(20일, 월)부터 모레까지 이틀간 계속된다. 이번 겨울성경학교 기간에 교육1국에 속한 학생(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들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래요'를 주제로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기도를 드리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기도한다.

오늘 마지막 서리집사 사진촬영

104호 응접실에서 있어

2006년 섬김위원 요람 제작을 위한 서리집사 사진촬영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아직 촬영하지 않은 성도들은 오늘 중에 반드시 촬영하여야 하며 혹 사진촬영이 어려운 성도들은 본인의 사진을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2월중에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을 시상하는 시간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있다.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에게는 머그컵 세트를 드리고 있다. 2월중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은 다음과 같다.

- 필사1회 : 박순봉 권사(2교구)
- <4독> 유을상 집사(6교구)
- <3독> 김현주 권사(8교구) 이영자 권사(11교구)
- <2독> 김재중 집사 정미연 집사(14교구)
- <1독> 양춘경 집사 이소명 집사(1교구)
- 이응선 장로(2교구) 이윤영 권사(5교구)
- 강희자 권사 김대호 장로 김인식 권사(8교구)
- 김병호 집사 김현주 집사(9교구) 김경희 권사
- 김규성 집사(10교구) 김인숙 권사(13교구)
- 이선희 집사 정진영 성도 한난숙 집사(14교구)

교회옥탑층 출입금지

지금 교회 옥탑층은 종탑공사를 위한 많은 자재들이 비치되어 있어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공사가 완공되는 때까지 모든 성도들은 옥탑층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

금주의 성구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 13:8-10)

Let no debt remain outstanding, except the continuing debt to love one another, for he who loves his fellowman has fulfilled the law. The commandments,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murder," "Do not steal," "Do not cover," and whatever other commandment there may be, are summed up in this one rule: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does no harm to its neighbor. Therefore love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 (Romans 13:8-10[NIV])

만민에게 전도 - 이미용선교회

천국시민양성 - 교육1국 겨울성경학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지역 집사(2교구)

서울교회 이미용 선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지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섬기는 선교회입니다.

2001년 12월 창립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이미용 선교회는 여러 분의 협력자들과 더불어 그 사명을 힘껏 감당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봉사해주시는 집사님, 생업도 뒤로 하고 달려오시는 집사님, 연약한 몸으로도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달려오시는 권사님...

하나님을 섬기듯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 이기에 순종하는 마음들이 모여 즐겁게 봉사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물질로 기도로 협력해주신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이미용 선교회가 지속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이미용 선교회는 봉천동 동명 장애복지관(중증치매환자 50여분), 송파 시립장애복지관(중증치매환자 80여분), 과천 장애재단 믿음이네(선천,후천적 장애우 20여명)를 매월 1회 씩 방문하여 컷트, 염색, 퍼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저희가 찾아 뵙는 그 날을 어찌나 기다리시고 반기시는지... 그래서 더 아름답게 미용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자비량 선교를 하는 이미용 선교회에서는 미용기술 실무자, 기도, 물질 후원자 등의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땅히 나누어야 할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렇게 기도 할래요!

최악인 장로(교육1국장)

따뜻한 봄이 멀지않은 이때에 차세대 교회를 이끌고 갈 어린이들을 훈련하는 겨울성경학교가 2월20일과 21일 양일간 열립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사회의 학교교육보다 중요한 영혼을 살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에 의하면 매주 주일날 오전에 교회가 감당하는 교육은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의 26%, 그리고 초등학생의 33%를 교회가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가 성경학교를 통하여 더욱 늘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래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겨울성경학교를 진행할 때 온 성도께서는 교회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셔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안과 주위의 어린이들이 참여토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들이 복음화 될 때 민족의 미래가 있으며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아직은 어려서 미숙하지만 점차 장성하여 가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고 믿음이 자라서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는 데 까지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의 겨울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잘 진행 되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천국시민양성

For the beauty of the earth

김민집사(예루살렘 찬양대)

beauty of the earth" 등 몇 곡을 찬양하는데 그 중 두 곡

예루살렘 찬양대는 2005년 2월 영어예배가 시작되면서 함께 조직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찬양을 연습하였던 것이 몇 주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일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찬양대원은 많이 늘지 않았지만 우리는 처음 시작했을 때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께서 더 많이, 더 깊이 관여하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은 국내에 아직 한국어 가사로 번역되어 소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국내 초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찬양대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들의 모임이어서인지 해외출장, 유학, 이민 등으로 찬양대 인원수에 변화가 많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찬양대는 조직된지 1년쯤 된 즈음인 오늘(2월 19일) 찬양예배 시에 특별찬양을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라려고 합니다. John Rutter의 "For the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영어로 찬양하실 수 있는 분, 찬양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 - 전도위원회수련회를 준비하며.

천국시민양성 -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불신자의 파열음

이영수 장로(전도위원장)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가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현상인 것이다. 악령의 꾀질로 단단해진 영혼에 좌우에 날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리한 칼이 찢리는 고통의 소리가 거부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전쟁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받은 은혜와 복음의 열정만가지고 전도대열에 뛰어 들었다가 불신자들이 내 뱀의 무시나 폭언에 가까운 거절의 소리에 놀라 뒤로 물러가거나 거부반응이 두려워서 큰 구원의 말씀(히 2:3)인 복음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타협하듯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전하다가 열매가 없음을 보고 아예 포기하는 사례를 본다.

사람의 지혜의 말은 듣는 귀가 즐겁고 그럴 듯 해 보이지만 그것은 예리한 칼이 아니기 때문에 어두운 영의 꾀질을 찢러 쪼개기에는 역부족함으로 불신자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전도학교 교육내용에는 불신자가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악령의 꾀질에 균열이 생기는 현상으로 겹을 먹거나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더욱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겹으로 지혜롭게 계속 파고들어야 하는 것이다.

화를 낸 불신자는 상처를 입은 껍질 속으로 성령의 칼이 들어갔고 복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을 알기에 몇 번이고 방관해서 기어코 결실을 맺는 것이다.

전도자는 불신자들로부터 나오는 파열음에 놀라서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마다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기회로 알고 더욱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지성적 크리스찬

이지영 (청년부)

수년 동안 쌓여온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 기다려졌던 수련회였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나 자신을 돌아보며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먼저 연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기도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믿었으나, 지금까지 입술과 머리로만 사랑을 고백하였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 자신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이때에 더 늦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만이 아는 내 짧은 인생길의 무거운 발걸음들을 청년부로 돌려 주셨고,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며 살고 있는가를 새삼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오래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심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유하심과 사랑을 느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달려오신 이종운 목사님과 수련회장에서 처음 뵈 새 청년부 담당 장석남 목사님의 요한복음 15장 4절-5절의 말씀을 통해 신앙은 관계이며, 서로 용납과 용서, 포용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자고 하신 귀한 가르침을 가슴으로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나누고 싶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와 지체들, 그리고 목자를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100교회 후원 결연 현황

번호	교회	교역자	지원자	구좌
44	광음	임숙화(목)	모세전교회 루디아전도회	2 2
45	팔성	이상섭(목)	고유원 스데반회 홍순복	0.5 5 1
46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강철환	이관규,이순영	1
47	지아철선교회	유창진(목)	하영수,박정순	1
48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김상철	김상철,최원자	1
49	평화교회(대성공사)	조용표(목)	이강진,송미령	1
50	평화의집	김영환(목)	하인선,남태순	1
51	특목구운동포장협의회	석시현	1-22대학방 예사모	0.5 0.5
52	531탄약대대	김원수(목)	진돈,김경희	1
53	진부영교회	주수원(목)	한광마,유성임	1
54	2선재대 새마을교회	차태오(목)	한승진,최미아	1
55	백령도63대대	권혁민(목)	이갑진	1
56	참빛교회	김상수(목)	오유식,이봉규	1
57	미시영교회	피상열(목)	김병욱,오병호	1
58	대동교회	한영(목)	이복규,한명순	1
59	빛나는교회	이성우(목)	주동재,김동진	1
60	아미존교회	강영관(목)	김재근	1
61	해암교회	오창식(목)	홍승전,황정임	1
62	신연교회	유기중(목)	김삼태,김숙자	1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0일(월) 기독교교도소 아가페 이사회, 23일(목) 북한구원운동에 참여하고, 24일(금)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한국 동창회를 소집한다.
- <승진>: 손종근 집사(13교구 최은석 집사 부군) 국민은행 중국 광주 사무소장 <-duty>: 오현수 원개심 성도가경 2월15일
- 개업: 1교구 전교인집사, 이은정집사 e 북 서울강변역점(해물샤브샤브부페) 구의동 강변 스퀘어드2층 457-8837
- 개소: 2교구 공성진 성도교회(원 후원회 사무소) 대치동 959-4 은혜빌딩 538-5369
- 주간식당 봉사: 엘리야선교회(2월19일) 모세전교회(2월26일)
- 금주의 식사: 경천수 집사 최명희 성도가경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겨울성경학교·수련회 은혜 중 진행되도록
2. 육사 졸업감사예배와 호산나 학교 개교를 위하여
3.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성경대학을 비롯한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4. 하나님의 광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 교회오시는 길

